

Hello~ My Co-workers! :)

여러분~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잘 아시지요? 처음 센터건립이 계획되었을 때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에 이어 금호글로벌 체험센터, 내년에는 성수 글로벌체험센터까지 하나 더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센터가 잘 운영되기까지 우리의 든든한 아군이 있는데요. 현재 센터 두 곳에는 바다 건너 멀리서 온 동료들이 있습니다.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눈동자까지 색깔은 다르지만 성동에서 우리와 같이 일하는 Ben & Monica, Justin & Amy!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실수도 하고 문화차이도 느꼈을 텐데요. 그들의 좌충우돌, 한국에서의 생활을 들어볼까요?

서울로의 이사

저스틴: 6월에 서울에 오는 일은, 저희에게 단순히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나라의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큰 행복과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비단 동료들 뿐 아니라 용답 주민분들, 성동구민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도와주며 진심으로 따뜻이 환대해 주었습니다.

Moving to Seoul

Justin: When we moved to Seoul in June we were not only changing careers, but also committed ourselves to living in a brand new city within a brand new country that spoke a brand new language. Despite all of these tremendous changes we have found so much happiness, excitement, and friendship in our short time here. The support and acceptance we have received from our wonderful coworkers as well as the citizens of Yongdap, Seongdong-gu and Seoul have been truly heartwarming and have showed us the true hospitable spirit of Korea.

에이미: 한국에 오는 것은 큰 변화였지만,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는 금세 저희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이웃을 만나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거리를 걸으며 여전히 새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시장을 걸으면서 다양한 가게와 레스토랑을 방문하곤 합니다. 이제는 제가 단골로 빵, 커피, 야채를 사는 장소가 생겼어요! 해가 진 뒤에 이곳은 깨어난답니다.(저희는 용답재시장 근방에 살고 있어요.) 거리에는形形色색의 불빛이 비치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용답은 특별한 곳입니

다.

Amy: Moving to Korea was a big change, but Yongdap, and the Global English House, quickly began to feel like home. Getting to know the neighborhood was one of the first things I wanted to do, and I am still finding new things every time I walk down the streets. I enjoy walking through the market and visiting different stores and restaurants. By now I have my favorite places to go for things like bread, coffee, and vegetables! I like the way the neighborhood comes alive after the sun goes down – the streets are lit with so many colorful lights and there are so many people laughing and eating in the local restaurants. Yongdap is a special place to live.

(사진2매 요청)

성동글로벌 하우스에서 사진이랑

용답동에서 찍은 사진 있으면 첨부해주세요.

서울탐험

저스틴: 모험으로 가득한 서울을 탐험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서울에 온 후 매 주말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의 5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매 주말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도봉산 정상까지 등반도 하였고 세종대왕 동상에서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서울 국제 불꽃 축제에서 불꽃놀이도 구경하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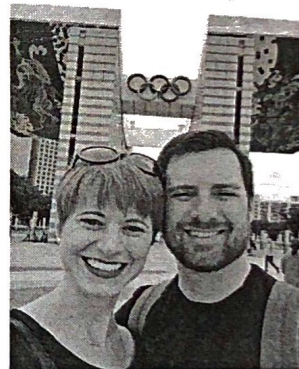
Exploring Seoul

Justin: We have found Seoul to be a city full of adventure and have found great pleasure in exploring the city's various neighborhoods. Since moving to Seoul we have committed ourselves to trying something new every weekend and so far, after almost five months, we have been able to fill each weekend with some new activities. Some our favorite activities have been hiking to the top Dobongsan Peak in Bukhansan Park, learning about Korea's history at the statue of King Sejong, and watching the fireworks at the Hanhwa Seoul International Fireworks Festival.

에이미: 저는 야외 활동을 좋아해서 도심 속 공원을 방문하는 것을 즐겨왔어요. 서울숲은 처음 방문한 공원 중 하나인데 여러 번 다시 찾았습니다. 볼거리가 정말 많

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도 조각품과 나비 정원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린이 대공원 또한 놀라운(동물원이 무료라니요!) 공원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은 세계평화의 문과 평화의 불꽃뿐만 아니라 많은 산책로와 쉼터가 있어 소풍에 어울리는 멋진 장소입니다. 세계 불꽃 축제를 보러 여의도 한강 공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는 곱게 물든 낙엽을 보기 위해 용산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 많은 공원이 있어 너무 즐겁습니다.

Amy: I love being outdoors, and I have greatly enjoyed visiting some of the City's parks. Seoul Forest was one of the first parks I visited, and I have returned to this park many times. There is so much to see at Seoul Forest! The sculptures and the butterfly garden are two of my favorite things. Children's Grand Park is another amazing park – how wonderful to learn that the zoo is free of charge! In addition to the famous five rings and eternal flame at Olympic Park, I also found many walking paths and places to sit – a wonderful place for a picnic! I went to the Firework Festival at Yeouido Hangang Park. Most recently, I visited Yongsan Park to see the colorful fall leaves. It is nice to have so many parks close to our home.



그리고

저스틴: 한국 영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한국 영화 중에는 “부산행”, “괴물”, “올드보이”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 영화 “국제시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익했으며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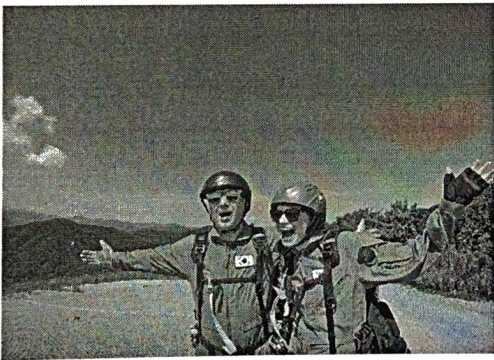
Other Experiences

Justin: As we continue to live in Korea I hope to experience and learn more about Korean films. I love to watch movies, especially horror movies, and some of my

favorite Korean films include Train to Busan, The Host, and Old boy. When we first moved here, we also watched the film Ode To My Father and I found it to be very informative and it helped give me a better sense of the history and identity of Korea.

에이미: 우리는 한국에서 많은 재미있는 경험을 했고 그중에서도 양평에서 한 패러글라이딩은 매우 즐거운 모험이었습니다. 출발지점에 도착했을 때 정상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그곳의 평화가 저를 안정시켜 산에서 달려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서 뜨는 순간 느낀 상쾌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류를 타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한국의 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Amy: We have done many fun and exciting things since moving to Korea, but one of my favorite adventures has been paragliding at Yangpyeong. When we arrived at the launch site, I noticed a quiet serenity on the mountaintop. It was very peaceful, and calmed any nervousness I had about running off a mountain. The moment my feet left the ground was exhilarating. Riding the air currents made me feel like I was flying. It was incredible to see some of the beautiful mountains of Korea from the sky.



(교육지원과 정지연)

육아로 오랜 기간 업무를 떠나있다 사무실로 복귀하고 얼마 안 된 지난 6월, 저스틴 에이미 부부가 입국했어요. 한국이 처음인 부부와 오랜만의 업무가 낯설어 버벅이는 제가 좌충우돌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이 쌀쌀해지자 바닥 난방(온돌)이 신기하다 눈을 반짝이고, 영어교육이라 이름을 내건 직원과의 수다, 티타임이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부부와 대화하다 보면 일상의 당연한 일들이 가끔은 선물같이 느껴집니다.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용담길 133)를 지날 기회가 있으시면 잠시 들러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새로운 나라에서 맞이한 첫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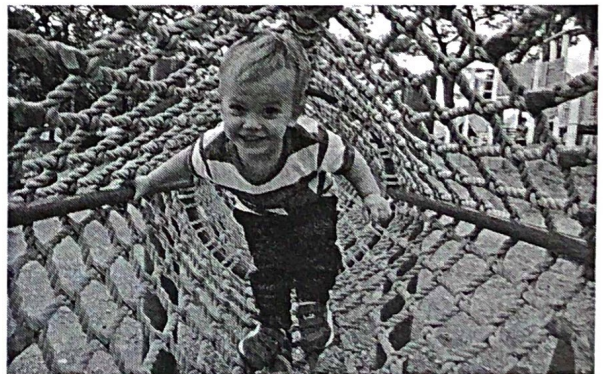
모니카: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한국의 많은 곳을 보았지만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면 저희가 경험한 부분은 지극히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은 부분은 역시 저희 아들 아브람의 탄생일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으로, 그리고 100일을 키우고 어린이집에 가기까지 우리는 현지인처럼 되기 위해 열심히 한국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New Baby in a New World

Monica: Over the past three years we have seen a lot of Korea, but we believe that famous sites are only a small part of the wonderful culture that is present here. The biggest immersion experience we had is the birth of our son Abram. From hospital, to sanhujoriwon, to 100 days, and eventually to daycare, we try hard to live like locals and adopt the culture in our new home.

벤: 모든 문화에서 그러하듯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습과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저희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접하면서 부모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고 한국에서는 많은 동료들과 동년배 부모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아브람은 수많은 이모들, 삼촌들, 그리고 형들과 누나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으니 정말 축복받은 아이예요. 아브람에게 최고의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Ben: In every culture, parenthood is filled with superstitions and traditions we can't explain. We have somehow managed the best of two worlds, with advice and visits from our parents and American friends as well as help from our amazing family of coworkers and fellow parents. Abram is so blessed to grow up with aunts, uncles, brothers, and sisters from many backgrounds. He is loved by so many people; we couldn't plan for a better environment for his development.



한국과 외국의 친구들

벤: 기존에 한국에서 선생님이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한국에 온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또한 성당에서도 (저희는 가톨릭신자입니다.)아브람과 같은 달에 태어난 친구들을 키우는 부모들과 사귀게 되었답니다. 한국 문화가 항상 타인에게 친절하고 특히 가족을 소중히 하는 문화라서 저희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빨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Friends Foreign and Domestic

Ben: We were lucky to have a network of friends who were already teaching in Korea or who arrived at the same time we did. We were lucky to meet church friends who were having children in the *same month* that Abram was born. We were lucky to work with special people whom we could call friends so quickly. Yes, we might feel like we have been lucky to integrate so quickly, but I think it's because Korean culture is centered in hospitality and family.

모니카: 벤의 친구들은 사진촬영과 사이클링(자전거)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벤은 자전거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 가끔 자전거로 원거리 사이클링을 다녀와요. 저는 바느질과 수영이 취미예요. 바느질재료를 사러 동대문을 갈 때는 정말 신나요. 영어로 하는 자수수업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큰 규모의 수영장인 있는 지역 스포츠센터와 무척 가까워서 정말 기뻐요.

Monica: Ben's friends are excited about photography and cycling. He often commutes to work by bicycle and he occasionally does distance rides on weekends. My hobbies are sewing and swimming. The accessibility of Dongdaemun Market for sewing supplies is outstanding, and I found some classes in English to learn new designs. Our apartment is also so close to the local sports center, which has a full-size swimming pool.



성장

모니카: 성동구청은 구민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도 성동구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벤과 저는 저희가 종사하고 있는 교육분야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분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경험을 쌓은 후, 금호글로벌체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어요. 저희는 저희가 열심히 개발한 금호글로벌체험센터의 프로그램이 무척 자랑스럽고, 저희가 계획한 일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몰심양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있어요.

Developing

Monica: Seongdong-gu Office does everything to help its citizens. There is so much support for our family that we feel it is only right to give our all to help Seongdong-gu thrive. Our career is education, and we take pride in our ability to plan programs that are fun and informative. After we had a few years' experience, we were asked to help develop the Geumho Global Experience Center. We are very proud to work at this program, and grateful to all the people who made it happen.

벤: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성동구의 교육발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말 뜻깊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호글로벌체험센터의 초기 디자인 미팅부터 수업 프로그램의 세부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호글로벌체험센터를 함께 준비하면서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와 크고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민간부문에서 사회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한국의 공무원 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점도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가 최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동시에 항상 한국문화의 중심에는 가족의 화합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Ben: The Global Experience Program is a significant investment for Seongdong-gu in the education and success of its children. We were honored to be involved with the program's expansion plan, from the very first design meetings to the eventual daily lesson implementation. We have learned so much about project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all the details that entail such a huge project. It's fascinating to learn about government employee culture in Korea, because it's very different from the private sector experience we had in America. Everyone works hard to achieve the best results, but there is always a lingering sensation of family togetherness.



(교육지원과 김유정)

두 분 선생님과 근무한지 벌써 8개월이 되어가네요. 처음에 벤, 모니카 선생님을 뵈었을 때에는 '한국문화를 잘 모르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한국인인 저보다도 매운 음식을 잘 먹고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두 분을 보면서 '아! 이 분들, 절반은 한국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보다도 정이 많고 따뜻한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